영공스님 입적 사리 300과 나와

효봉·성철스님 등과 함께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했던 조계종 응선사 조실 영공스님이 세수 96, 법랍 68세로 1일 서울 응선사에서 열반했다. 3일 경기 벽제화장장에서 다비식을 가진 스님의 법구에서는 팔알 크기의 옥색 사리 9과를 비롯 쌀알 크기의 사리 300여과가 수습됐다.

1905년 경기 양주에서 출생한 영공스님은 33년 화성 수도암에서 박금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37년 금강산 유점사 능인계단에서 박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는 송만공스님 문하에서 효봉, 성철, 만해, 덕암스님 등 20여명의 수좌들과 함께 참선 수행에 매진했으며 양주 회암사, 도봉산 천축사, 서울 응선사 중창불사를 완수하는 등 포교에도 힘을 쏟았다.

"관세음보살을 끊임 없이 염할 경우 관세음보살이 내 몸에 상주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로 화현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염불선"이라고 강조해 온 스님은 참선과 염불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고 절약과 무소유 정신실천에 앞장섰다.

"스님이 공부 안하면 지옥이 3천개"라며, "스님들은 시줏밥 무서운 줄 잘 알아야 하고, 수행자라면 돈과 명예욕을 철저히 버리고 살아야 한다"고 늘 제자들에게 강조한 스님은 "불교는 신라시대처럼 생활불교가 되어야 살아난다. 불자가 없으면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찰은 생활불교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동국대 총동림회장 정진스님 입적

불우한 이웃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해 종단 안팎의 존경을 받아오던 영산 정진〈사진·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회장〉 스님이 서울 보문사에서 1일 입적했다. 법랍 45세 세수 60세. 스님의 다비는 3일 전남 나주 다보사에서 봉행됐다. 1941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태어나 1960년 우화 스님을 은사로 서울 대각사에서 득도한 정진 스님은 은해사 대교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했다. 이후 병상심방원 원장, 보문정사 유치원 이사장, 불교간병인협회 회장, 사회지원복지전문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중생들을 돕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 30여 년 간 국군병원과 전방의 군부대를 방문하며 포교에 진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7년 1월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日스님 독립기념관서 참회기도

위안부 문제 등 사죄 한국 일주 도보순례

두달 간 1000km를 걸으며 '한국 일주 사죄 순례길'에 오른 일본 신텐(神泉)시 산묘법사(山妙法寺)의 이와타루조(岩田隆造) 스님〈본지 280호 22면 기사참조〉이 14~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이틀 동안 단식하며 '사죄 기도'를 올렸다.

스님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강점해 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죄를 저지른 데 대해 일본인의 한사람으로 사죄하기 위해 고행길에 올랐다"며 "나의 한국 도보순례가 일본인들에게는 자성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과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7월12일 도쿄역을 출발, 시모노세키에서 페리호를 타고 부산에 도착(7월14일) 한 후 도보로 마산과 진해, 진주, 순천, 광주, 익산, 인천, 서울을 거쳐 독립기념관에 도착한 스님은 10일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해 지난날의 일본의 만행에 대해 사죄하기도 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박원순 변호사 "불교 사회참여 시대 요구"

"시민단체도 폐업 선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21세기에는 '하화중생'을 도모하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5일 우리는선우 8월 정기법회에서 '21세기 시민운동과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자기만을 위한 위한 수행은 부처의 길이 아니다"며 "현실참여 불교는 시대적 요구이자 불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불상에 핀 하얀 꽃

Focus

천태종 대전 광수사(주지 세운)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오른쪽 팔꿈치에 신비한 하얀 꽃이 피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오전 김갈룡 부전스님이 불단을 청소하다 발견한 이 꽃은 길이가 2.5㎝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가는 뿌리를 내렸으며, 줄기 또한 낚시줄처럼 가늘고 투명하며 끝 부분에 여러 가닥의 가는 가지가 뻗고 그 위에 3㎜ 크기의 하얀 꽃이 피어 꽃을 보기 위해 하루 평균 천여명이 광수사를 찾고 있다.(042)823-0332~4

주지 세운 스님은 "우리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 광수사 부처님 불신(佛身)에 신비로운 꽃이 핌으로써 민족에게 서광을 주고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반가워 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일주문

진신사리 친견 회향법회

신허 통도사 주지는 14일 설법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회향 법회 및 백중 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이날 부방장 상우 스님의 하안거 해제 법문으로 시작된 이날의 법회를 마치고 통도사를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통도사 전경, 어린이 캐릭터가 디자인된 스케치북 2천개를 무료로 증정했다.

북한에 밀가루·옷감 전달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는 7월31일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에 중국산 밀가루(특A급) 50톤과 여름 옷감 천 3500m를 전달했다.

재생불량 빈혈환자에 성금

영조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장 스님은 28일 오후3시 광주 관음사에서 재생불량 성빈혈을 앓고 있는 오성애씨에게 성금 1백만원을 전달한다.

네팔 건축인과 사찰순례

법신 네팔 룸비니 대성 석가사 주지는 5일 네팔 사찰 건축 기술진과 함께 귀국, 2개월간 해인사, 통도사 등 10여 사찰을 순방한다.

'부처님의 건강법' 법문

경훈 무안 약사사 주지는 25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부처님의 건강법'을 주제로 법문한다. 062)228-9098

법회경 사경·탑돌이 법회

도림 평화통일불사리탑사 주지는 15~17일 평화통일과 구국안민을 발원하는 한민족 법화경 사경·독송 및 108탑돌이 대법회를 제주 조천에 있는 평화통일불사리탑사에서 개최한다.

이화여대서 불교미술 강의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겨 9월부터 불교미술을 강의한다.

강진 백련사 군장병 수계법회

강진 백련사(주지 혜인)는 8일 육군 제8539부대에서 장·사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가졌다.

주지 혜인스님은 "군에서는 5계 모두를 실천하기 어렵지만,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면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수련이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발원으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윤오 목포지국장

불교유아교육협 불교 유치원교사 수련회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회장 정인)는 28, 29일 양일간 내원정사 및 내원정사 어린이집에서 제27회 대한불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수련회를 개최했다.

'늘 푸른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서울, 제주, 부산, 대구, 경북 등지의 교사 3백 여명이 참가했다.

설법연구원 수운회관 이전법회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이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403호로 사무실을 옮기고 7일 이전 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주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법현 스님(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성전 스님(옥천암 주지), 김봉소 삼천사 부부불자회 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정수일씨 8·15특사로 출소

산사서 수행 희망

동서교류사를 전공하고 불교계에는 서역불교 교류사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정수일 (일명 무하마드 깐수, 前 단국대 사학과 교수)씨가 15일 8·15 특사로 출소했다.

정씨는 지난 74년부터 5년간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뒤 84년 레바논계 필리핀인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국내에서 12년 동안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98년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98년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개월만에 이슬람교에서 불교로 개종, 오원스님(칠보사 주지)에게 계를 받고 '자광(慈光)' 정수일로 새롭게 태어난 정씨는 밥알로 부처님을 조성해 놓고 매일 108배를 하고, 〈천수경〉〈금강경〉〈반야심경〉 등을 읽고 쓰면서 보낼 정도로 불교에 깊이 빠져 들었다.

정씨는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에게 편지를 통해 "이곳 도량(대전교도소)의 일주문을 나서게 되면 산사에 들어가 수행을 계속할까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도필선 기자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증 명 : 서옹 대종사, 혜암 대종사
■고 문 : 관응, 고송, 월하, 원담, 벽암, 석주, 응담, 도천, 도견, 지종, 청하, 성수, 숭산, 종산, 보성, 정천, 법전, 녹원, 도원, 월인, 청화, 송담, 법룡, 정영, 진제, 지유, 활안, 인허, 법행, 정일, 월주, 혜정, 벽봉, 천운, 고산, 정대, 능가 *(무순)*
■자문위원 : 거혜, 고봉, 고우, 광제, 구암, 구한, 근일, 노학, 능연, 능혜, 다정, 덕민, 무진장 대원, 덕명, 도문, 도영, 도성, 도후, 동광, 명선, 몽산, 무분, 무여, 무공, 무비, 밀운, 법등, 법안, 법의, 법장, 법정, 법조, 법조, 법타, 법현, 법홍, 벽파, 백운, 보광, 보선, 봉주, 부림, 선곡, 설정, 성덕, 성오, 성우, 성우, 성주, 성타, 성파, 세민, 송경, 암도, 우송, 원명, 원융, 원성, 월운, 월은, 월단, 월파, 인각, 인환, 일면, 일우, 정관, 정광, 정락, 정련, 정명, 정무, 종걸, 종법, 종성, 종원, 종진, 중원, 지관, 지선, 지성, 지은, 지하, 진철, 진허, 진호, 초우, 천계, 철웅, 철웅, 철형, 초삼, 통광, 평진, 학능, 화암, 헌기, 현산, 현성, 현해, 현호, 혜광, 혜국, 혜남, 혜산, 혜성, 혜정, 혜총, 효광, 효산, 홍교 *(가나다순)*
■지도위원 : 각수, 각현, 경훈, 계성, 계현, 광복, 광조, 금산, 금성, 금송, 능성 대성, 대오, 대우, 대원, 대현, 대효, 덕상, 덕함, 도각, 도문, 도법, 도선, 도안, 도오, 도완, 도원, 돈각, 돈수, 동덕, 동명, 동욱, 두백, 마근, 만조, 명곤, 명관, 명언, 명정, 명조, 명진, 몽산, 무관, 무량, 무산, 무상, 무연, 무착, 백산, 범종, 법각, 법공, 법담, 법두, 법보, 법성, 법안, 법연, 법우, 법인, 법일, 법혜, 벽담, 벽상, 보광, 보성, 부동, 불산, 상경, 상운, 상련, 석호, 선광, 선봉, 선요, 선용, 선용, 설송, 설조, 성관, 성로, 성문, 성문, 성우, 성운, 성원, 성재, 성주, 성혜, 세영, 소연, 수경, 수완, 수진, 시몽, 심경, 양산, 여연, 연관, 연수, 영담, 영명, 영배, 영선, 영조, 영진, 영환, 우담, 우화, 유광, 원담, 원명, 원연, 원우, 원응, 원타, 원택, 원행, 원행, 원효, 월우, 의정, 인각, 인담, 인묵, 인행, 일륜, 일철, 임조, 장곡, 장윤, 장주, 재문, 적연, 정각, 정경, 정관, 정념, 정묵, 정우, 정우, 정인, 정중, 정찬, 정태, 정혜, 정호, 정휴, 제우, 종경, 종고, 종광, 종대, 종락, 종림, 종밀, 종실, 종삼, 종상, 종안, 종열, 종우, 중지, 종표, 종하, 종현, 자승, 제호, 주일, 지공, 지광, 지근, 지만, 지묵, 지법, 지송, 지승, 지오, 지우, 지운, 지윤, 지욱, 지원, 지일, 지진, 지하, 지향, 지현, 지형, 지홍, 지환, 진각, 진관, 진광, 진만, 진성, 진아, 진원, 진현, 천진, 철산, 철우, 철인, 청원, 청제, 청화, 탄공, 탄우, 태공, 태연, 태욱, 태웅, 평상, 평중, 학담, 합주, 향운, 향적, 허정, 현각, 현근, 현봉, 현소, 현암, 현용, 현웅, 현장, 현전, 현지, 현진, 현진, 혜관, 혜권, 혜산, 혜안, 혜암, 혜원, 혜정, 혜창, 호연, 화범, 효광, 효종, 경륜, 계호, 도문, 법성, 본각, 수현, 운달, 육문, 일법, 재운, 지형, 진성, 해주 *(가나다순)*
■조직위원장 : 다정
■조직위원 : 총해, 창봉, 선각, 백암, 원연, 혜승, 진공, 수인, 창렬, 창오, 원공, 원진, 도형,지일, 응각, 현광, 법일, 성덕, 법륜, 진우, 법운, 화봉, 현명, 도륜, 원응, 법장, 도안, 법성, 향공, 법영, 맹연, 명공, 탄우, 법승, 일수, 진오, 도성, 실재, 정법, 타파, 현공, 정연, 도일, 진우, 무공, 창운, 보현, 진석, 현공, 석용, 현각, 혜성, 무연, 정헌, 의연, 원일, 세정, 선공, 토진, 성륵, 일도, 광진, 자성, 동참, 동화, 동파, 자연, 보연, 원종, 석장, 본묵, 혜현, 장우, 원철, 명진, 대묵, 법광, 본연, 청연, 도연, 초연, 상연, 금강, 현묵, 무아, 무상, 정만, 용우, 형공, 여훈, 보행, 문성, 심연, 법현, 무경, 현정, 관연, 호산, 영공, 규암, 혜각, 동산, 경진, 대만, 지웅, 도현, 무학, 제영, 관명, 정명, 법지, 정재, 도일, 정견, 학연, 석연, 한북, 원광, 법령, 주경, 성전, 성오, 대주, 재연, 차연, 철우, 완명, 성윤, 광전, 명전, 대천, 현암, 선각, 선공, 법연, 대연, 혜용, 명원, 수안, 서훈, 동선, 금인, 홍원, 원융, 정진, 용진, 법우, 보인, 지상, 경선, 광인, 여연, 혜종, 만당, 성광, 영만, 대현, 상전, 귀본, 심연, 광연, 승연, 시연, 홍진, 진성, 삼진, 남연, 무애, 법선, 정일, 효진, 서진, 서강, 본연, 우선, 진성, 광조, 상암, 정본, 청호, 지암, 혜원, 석봉, 남운, 지택, 혜연, 현오, 유진 〈비구니〉 수련, 관불, 정훈, 정덕, 명신, 경신, 법명, 현정, 법조, 법현, 법정, 유정, 정일, 정안, 법홍, 혜근, 벽담, 일연, 선법, 상진, 정원, 자윤, 종현, 선각, 수인, 혜진, 대관, 혜종, 원공, 법혜, 자연, 지용, 화진, 지훈, 지원, 도현, 혜타, 지우, 지윤, 자원, 지광, 지명, 지장, 무석, 지홍, 정법, 지현, 혜준, 지현, 지인, 해만, 정화, 삼홍, 관송 *(법랍 순)*
■준비위원장 : 암도
■준비위원 : 원응, 원진, 타파, 일수, 현광, 진우, 원일, 무아, 호산, 도연, 법신, 현묵, 석연, 무학, 만당, 정견, 법구, 법주, 소궁, 정진, 법전, 보광, 덕룡, 범상, 혜장

古佛叢林
참사람 無遮大法會
2544년 8월 19일(음 7.20) 토요일

고불총림 백양사
전화 (061) 392-7502 팩스 (061) 392-2081

■법어 : 서옹 고불총림 방장, 월하 영축총림 방장, 숭산 화계사 조실, 진제 동화사 조실
■강설 : 성본 동국대 교수
■일정
• 오전 9시30분 큰스님 법어
• 오후 2시 큰스님 법어 및 강설
• 오후 6시 : 연등 점등
※ 오전 8시30분~수시 : 방생법회(일광정 호수)

■주최 : 고불총림 백양사
■주관 : 참사람 무차대법회 조직위원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